



답보 상태에 놓인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여겨졌던 국방부·국토부·광주시·전남도 4자 실무협의체의 18일 회의가 광주시의 광주 공항 이전 합의 파기 결정, 그에 따른 전남도의 반발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15일 광주공항에 어둠이 짙게 깔렸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첩첩산중 전남, 4자 실무협의체 참여 거부

국방부·국토부·광주시·전남도 군공항 이전 협의체 회의 연기

광주 민간 공항과 군 공항 이전 사업이 또다시 꼬이고 있다.

전남도가 '민간공항 이전과 군 공항 이전을 묶어 추진하자'는 광주시의 제안에 반발해 국토부와 국방부를 포함한 4자 협의체 회의의 참여를 무기한 거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양 사·도가 공항 이전 문제로 팽팽한 감정을 싸움을 벌이면서 어렵게 정부 부처까지 참여해 만든 4자 협의체가 무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오는 18일로 예정된 광주 군공항 관련 국방부·국토부·광주시·전남도 4자 실무협의체 회의의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4자 실무협의체는 국토부 주관으로 국방부와 광주시, 전남도 참여 아래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주민수용성 지원책 마련을 위해 꾸려졌다.

지난달 13일 광주에서 첫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지난 1일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시도 상생발전발전위원회를 통해 조만간 4자 협의

체를 공식 가동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선 답보 상태에 놓인 군공항 이전 사업도 정부 부처들이 직접 나서면서 새 국면을 맞을 것이라 기대 섞인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9일 군 공항 이전 문제와 민간 공항 이전 시기를 4자 협의체 결정에 따르겠다고 발표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전남도가 "광주 민간공항 이전과 군공항 이전은 별개 사업인데 (광주시가) 약속을 깬다"고 반발하면서 4자 협의체 회의의 불참 의사를 밝히고 나선 것이다.

전남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경제단체에서도 광주시가 애초 약속한 민간공항 이전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광주시가 상생 정신을 포기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시도 행정 통합 관련 연구용역비 2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김광휘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실무적으로 오는 18일, 4자 협의체 만남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전남도로부터 어떠한 입장도 전달받지 못했고, 계획대로 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4자 협의체에서는 군공항 이전만 다루어 한다는 전남도의 주장과 관련해선 "4자 협의체를 국토부가 주관하는 것은 군 공항은 물론 민간 공항 이전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전남도가 만약 4자 협의체에서 군 공항 이전을 논의하자는 우리(광주시)의 주장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있다면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명장한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4자 실무 협의체 구성에는 합의했으나, 광주시의 일방적 합의 파기(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으로의 이전-통합)에 따라 현재로서는 전남도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명 실장은 "광주시가 이제라도 광주 민간공항 이전 유보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당초 합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사·도 상생 정신을 말로만 외칠 게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이명박·박근혜 구속 사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

민주당, ‘진정성’에 대한 지적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법처리된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 광주를 찾아 ‘무릎 사과’를 한 뒤 이어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에서 관심을 끌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진정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국민의힘 계열 정당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 문제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4년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라며 “저희 당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를 잘 이끌어가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통치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리에 연연하며 아합했고, 역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지혜가 없었으며, 무엇보다 위기 앞에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했다”고 회고했다.

김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의 모습에 대해서도 “국민을 하늘처럼 두려워하며 궁구수

성(恐懼修省·몹시 두려워하며 수양하고 반성함)의 자세로 지속해야 마땅했으나, 반성과 성찰의 마음가짐 또한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구태연함에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커다란 실망감에 대해서도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을 계기로 우리 정치가 더욱 성숙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했는데, 민주당과 법치가 오히려 퇴행한 작금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낀다”며 현 정권에 대한 비판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헌정사의 모든 대통령이 불행한 일을 겪었다”며 “외국으로 쫓겨나거나(이승만), 측근의 총탄에 맞거나(박정희), 포승줄에 묶여 법정에서 서거나(전두환·노태우), 일가친척이 줄줄이 감옥에 가거나(김영삼·김대중), 극단적인 선택(노무현)을 하는 등 어떤 대통령도 온전히 끝을 맺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이 영여의 몸이 돼 있다. 국가적으로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몇 번의 선거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 당에 준엄한 심판의 회초리를 들어 주셨다”며 “이 작은 사죄의 말씀이 국민 여러분의 가슴에 맺힌 오랜 응어리를 온전히 풀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고개 숙인다”고 거듭 사과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코로나 ‘주춤’ ... 방심은 ‘금물’

광주 39일만에 지역감염 없어 전남은 순천·나주서 2명 추가

광주에서 15일 오후 6시 기준 39일만에 코로나 19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다. 광주에선 지난 11월 6일 신규 확진자가 0명이었으나, 다음 날인 7일 2명이 신규 감염된 이래 확진자 발생이 이어졌다. <관련기사 2면>

광주시는 모처럼 확진자가 나오지 않긴 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1000명이 넘는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는 데다, 크리스마스 시즌과 연말연시를 맞아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

로 모임에 따른 집단감염 가능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또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는 수도권발 감염원 유입도 경계해야 한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광주는 앞서 지난 14일 자정께 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는 827명이다.

전남도는 2명이 추가됐다. 전남에서는 이날 순천과 나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각각 1명씩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483명으로 늘었다. 순천 확진자는 지난 14일 밤 확진 판정받은 중장비 관련 업체 대표의 배우자이며, 나주 확진자는 충북 578번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목포·영암 ‘고용위기지역 지정’ 1년 연장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목포와 영암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목포·영암을 포함한 현행 7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간을 2021년 말까지 모두 연장하기로 했다.

목포·영암의 고용위기지역 연장에 따라 사업주

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직업훈련지원금 지급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유예 ▲장애인고용 부담금 납부유예 ▲고용보험 지원신고 과태료면제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어지게 된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훈련연장급여 지급 ▲취업촉진수당 지급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근로자 생활자금 융자 등의 지원이 계속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자영업자 임대료 경감 공론화 나섰다 ▶4면
- 성금 다가온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 ▶10면
- ‘장타여왕’ 김아림 US 여자오픈 우승 ▶18면



12월

광주국악상설공연

매주 화~토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전석무료 거리두기 지정좌석제

| 인터넷예약 |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티케팅
| 전화예약 | 062)613-8379/8372
| 온라인공연 | YouTube 광주문화예술회관

| 주최 |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 주관 | 광주문화예술회관 | 관람 | 만4세이상